

인간 이후의 문학, 인간 너머의 서사*

—20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출현과 전개

노대원**

목 차

1. 서론
2. 미친 과학자와 인조인: 식민지 시기의 포스트휴먼 상상력
3. 창작기계와 컴퓨터 산: 90년대 사이버문학 시대의 SF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세기 한국 SF 장르 소설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상상력의 변천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포스트휴먼 연구는 인간 이후, 인간 너머, 인간의 미래와 종언에 관한 성찰로, 디지털 및 정보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와 인류세적 생태 위기와 같은 조건은 한국 소설의 상상력을 변모시켰다. 포스트휴먼 문학을 소재와 주제 측면에서 ‘포스트휴먼에 관한’, 창작 과정에서 ‘포스트휴먼에 의한’, 독자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리즘적 읽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20세기 한국 SF에서 이러한 포스트휴먼 상상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출현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각 시기의 주요 작가와 텍스트를 다룬다. 식민지 시기 이광수와 김동인의 작품을 통해 로봇과 인조인 등 기술적 비인간 주체에 대한 계몽적 낙관과 비판적 시각의 두 가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거일과 듀나를 비롯한 후대 작가들이 창작한 포스트휴먼 서사의 기초가 된다. 1990년대는 개인용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대형기획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3-KSS-1120007)

** 제주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컴퓨터와 PC 통신망의 확산,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포스트휴먼 SF가 새롭게 부흥하는 시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 SF의 지평을 넓혔다.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 문학이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기술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인류의 미래와 윤리적 책임을 탐구하는 장르임을 재확인한다. 20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는 AI와 기후 위기 등 첨단 기술과 기술 재앙으로 요약되는 현대 포스트휴먼 문화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할 것이다.

주제어: SF, 사변소설, 이광수, 김동인, 복거일, 디나

1. 서론

‘포스트휴먼 연구’(posthuman studies)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협력하고 대화하는 학제적 연구로서 인간 이후, 인간 너머, 인간의 미래와 종언에 관한 성찰과 사유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반인간(anti-human)이나 비인간(non-human)에 관한 사유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근대적 인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해체 과정인 포스트휴머니즘 사유를 포함한다. 이제 인간에 관한 학문인 인문학은 더 이상 인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인문학, 즉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은 인간과 인간 너머로까지 사유를 확장하고 있다.¹⁾ 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을 돌이켜 보면, 인간 너머에 대한 상상과 사유는 아주 오래된 것이기도 했다.

물론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개념은 한국 문학에서는 비교적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디지털 및 정보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후

1) 노대원,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200, 국어국문학회, 2022, 116~118면.

위기와 인류세적 생태 위기 등은 한국 소설의 상상력을 변모시키기에 충분한 물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AI나 기후 재난 같은 포스트휴먼 조건(posthuman condition)은 담론 속의 근대적 인간의 종언 문제를 첨단 기술 과학이라는 변인을 통해 현실이라는 무대에 극화한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사유는 긴급한 현실의 문제로 호출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문학장에서 SF 장르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세종이 되었다. 이 논문은 20세기 한국 SF, 특히 소설 문학에 집중해서 포스트휴먼 상상력의 변천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1) **포스트휴먼 문학이란 무엇인가?** 텍스트, 작가, 독자, 현실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자.

첫째, 포스트휴먼에 ‘관한’ 문학이다. 즉, 소재와 주제 측면에서 ‘포스트휴먼 등장인물’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포스트휴먼 조건’의 서사적 배경, 그리고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제와 질문을 의미 있게 다루는 문학 텍스트로 정의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적 확산과 심화 과정을 따라, 기술적으로 증강된 인물인 트랜스휴먼(transhuman)을 등장시킨 텍스트로부터 점차 더 많은 포스트휴먼 존재가 등장하는 텍스트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셰릴 빈트는 포스트휴먼과 SF의 관계를 세 범주로 제시하며, ① 트랜스휴먼과 같은 초인과 같은 미래 인간, ② 휴머니즘 전통에서 배제된 타자이자 새로운 인간으로서, 여성, 빈민, 식민 지인, 비규범적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지닌 사람들, ③ 동물, 미생물, 로봇과 인공지능, 식물, 외계인 같은 비인간 존재를 탐구한다고 한다.²⁾

둘째, 포스트휴먼 문학이란, 포스트휴먼에 ‘의한’ 문학이다. 문학의 창작 과정이 기술적 비인간 존재에 의해, 또는 인간과 비인간 협력에 의해 이루어

2) Sherryl Vint, "Posthumanism and Speculative Fiction," *Palgrave Handbook of Critical Posthumanism*,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2, p.226.

어지는 문학 텍스트 및 문학적 실천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조건을 서사 ‘주제’나 사회적 ‘맥락’으로 삼는 문학뿐만 아니라 생성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생성 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작가에 의한, 또는 비인간 기술과의 공동-창의성(co-creativity)³⁾에 기반한 포스트휴먼 창작 문학이 등장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포스트휴먼 문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요청할 뿐만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거듭 숙고하도록 한다.

셋째, 포스트휴먼 문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 또는 ‘포스트휴먼 감수성’⁴⁾을 지닌 독자의 읽기에서 탄생한다. 역으로, 포스트휴먼 문학은 독자의 읽기와 사유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읽기는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전통적(휴머니즘적) 이해를 해체하거나 비판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이 읽기는 인간중심주의에 도전하며, 새로운 해석적 관점을 통해 인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포스트휴머니즘적 돌봄’(posthumanist care)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포스트휴먼) 사이의 공존 가능성과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⁵⁾ 포스트휴머니즘은 다양한 이론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중립적인 용어가 아님을 강조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기획”⁶⁾이라는 인식에서 하나로 묶인다.

3) 공동 창의성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일부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것이다. 노대원, 『소설 쓰는 로봇-ChatGPT와 AI 생성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7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150면.

4)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9면.

5) SF 영화 〈엑스맨〉 시리즈는 돌연변이라는 포스트휴먼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통해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의 한계와 ‘포스트휴머니즘 돌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인류는 돌연변이를 배척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동화시키려 하지만, 찰스 자비에의 돌연변이를 돌보고 그들의 능력을 통제하도록 교육하며 공존을 모색한다. 자비에의 태도는 포스트휴머니즘 돌봄의 한 사례이다. Stefan Herbrechter & Ivan Callus, “What is a posthumanist reading?”,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3:1, 2008, pp.95~111.

6) Sherryl Vint, “Introduction”, Sherryl Vint, ed. *After the Human: Culture, Theory and*

넷째, 포스트휴먼 조건의 현실 속에서 산출된 당대의 문학 텍스트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휴먼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학’으로 지칭할 수 있는 범주일 텐데, 소재와 주제 측면에서는 SF와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 시대의 다양한 포스트휴먼 조건을 역사적 맥락 속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들을 포괄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문학비평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등의 기존 비평 이론을 계승하고 활용하지만, ‘초학제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후 위기나 인공지능, 킬러 로봇, 세계화된 금융과 같은 포스트휴먼 조건/곤경이 특정 문학 이론이나 협소한 인문사회과학의 단일한 방법론만으로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전지구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문학비평은 생태 위기, 성별 및 인종 불평등, 생명과학, 생의학, 에너지 과학 및 디지털 기술에서의 논쟁적인 발견과 실험이라는 상호연결된 세계적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새로운 인문학(New Humanities)의 비판적 탐구의 일환으로 다루어진다.⁷⁾

포스트휴먼 문학의 텍스트, 작가, 독자, 현실 모두는 현재 의미를 확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포스트휴먼 문학은 현재 진행형이다.

(2) 한국 현대 포스트휴먼 SF 텍스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포스트휴먼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혹은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범주와 경계를 교란하는 실체로 확장된 정의로 인식한다면, 한국 문학에서 포스트휴먼에 관한 상상은 신화와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오랜 역사를 자랑할

Criticism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7.

7) Carolyn Lau, "Posthuman Literature and Criticism", Rosi Braidotti ·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Bloomsbury, 2018, p.348.

것이다. 이를테면, 판소리계 설화소설인 『옹고집전』은 도승이 부적의 힘으로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응징한다는 이야기로, 한국의 원형적 과학소설로 언급된다.⁸⁾ 한국 고전 서사의 포스트휴먼 연구는 귀신이나 신선 등에 주목하기도 한다.⁹⁾ 그런데 이들은 근대적 인간 개념과 서구적 휴머니즘, 근대 과학기술이 수용되기 전의 비인간 존재들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비평은 오히려 근대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가 억압한 존재들을 해방시키거나 성찰하는 작업에 가깝다. 즉, 포스트휴먼 작중 인물만이 아니라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유 속에서 텍스트나 그 맥락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근대성과 과학기술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오늘날, 근대 휴머니즘의 비판이라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식론과 관련해, 한국 전 근대 문학과 동양 사상을 소급해서 포스트휴먼 조건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작업은 역시 중요한 과업으로 요청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인간 범주를 붕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지닌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력이라는 조건, 그리고 근대 휴머니즘의 해체 담론이라는 지성사적 배경을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직접적인 성립 배경으로 간주한다. 특히, ‘기술적으로 포화된 사회의 문학’(로저 록허스트)¹¹⁾이자 “완벽한 포스트휴먼의 장르”¹²⁾라고 불리는 SF 장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8)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110면.

9) 오세정,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인물론 연구」,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오세정,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장르론 연구－귀신 서사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01(27-4),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23.

10) 예컨대, 켄 리우(Ken Liu)의 스팀펑크(steampunk) 사변소설 『즐거운 사냥을 하길』(“Good Hunting”, 2012)은 근대화와 포스트휴먼화 모두를 사유하게 하는 단편이다. 이 소설은 서구화되어 가는 중국 농촌에 살아가는 여우 요괴와 퇴마사의 아들이 전통적/주술적 세계의 삶을 상실하고 기계 도시가 된 홍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결국 엔지니어와 사이보그로 포스트휴먼 주체가 된다. 노대원,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SF－켄 리우 SF 소설의 역사적 상상력』, 『문학들』, 2023 겨울(74), 심미안, 36-39면.

11) 세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아르테, 2019, 33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SF라는 약칭은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을, 그리고 나아가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을 뜻하며, 더욱이 양자 간의 긴밀한 관련성과 이 장르의 규정 불가능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의도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서구적 근대 과학을 비판적으로 해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학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확장/해체해 이해하는 최근의 관점에 따라 과학소설은 사변소설로 장르적 이해가 확장된다.¹³⁾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시기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20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가 어떻게 출현하고 전개되어 오늘날 21세기 포스트휴먼 문화의 기반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사한다. 특히 두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식민지 근대화 시기는 한국의 현대문학에서 최초로 포스트휴먼 상상력이 출발했던 시기로서 일종의 현대적 기원에 해당하며, 90년대는 21세기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AI 기술로 전개된 정보화 시대의 출발 시점이자 SF 장르가 여러 작가와 독자들에 의해 비로소 PC 통신을 통해 개화하던 ‘본격적인 도약기’¹⁴⁾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지면과 관점 안에서 이 연구가 만개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포스트휴먼 SF를 이해

12)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김응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탐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161면.

13) “사색(contemplation)이나 추측(conjecture)을 포함하는 ‘사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과학소설이 채택한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적절하게 포착한다.” Sherryl Vint, *Science Fiction*, MIT Press, 2021, p.10.

사변소설은 다의미적이며 고정되지 않은 용어로, 과학소설, 판타지, 공포 등 비모방적(non-mimetic) 문학을 포괄하기도 하며, 서구와 비서구 모두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장르이다. 초기에는 대중적인 과학소설과 구분되는 사색적인 작품이라는 의미였다. 현재는 장르 간 혼종화, 비서구적 토착·탈식민지 서사 확산, 착취적 글로벌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반응 등으로 발전했다. Marek Oziewicz, “Speculative Fict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March 29, 2017 참조. Date of access 2024.11.17.,

〈<https://oxfordre.com/literature/view/10.1093/acrefore/9780190201098.001.0001/acrefore-9780190201098-e-78>〉

14) 고장원,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한국과학소설 100년사』, BOOKKK, 2017, 164면.

할 굵은 뿌리 몇 가닥을 더듬어 볼 수 있길 바란다.

2. 미친 과학자와 인조인: 식민지 시기의 포스트휴먼 상상력

식민지 시기 과학소설, 혹은 ‘과학과 문학’(science and literature)의 두 기원이자 전사(前史)로서 이광수와 김동인을 설정함으로써 이후 포스트휴먼 SF의 전개 과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작가는 과학소설 장르에 대한 특별한 자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근대화 시기의 작가들답게, 서구 근대 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1917)은 과학 계몽의 메시지를 담은 소설로 평가받으며, 김동인의 단편소설 『K박사의 연구』(1929)는 한국 최초의 창작 과학소설로도 언급된다. 그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각각 계몽적이거나, 유희적/비판적이다. 두 작가의 이 태도는 이후 한국 SF 문학은 물론, 과학에 대한 포스트휴먼 서사의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와 관련된다. 즉, 인간과 과학에 대한 계몽주의적 진보 서사와 비판적 다원화의 서사가 그것이다.¹⁵⁾

이광수의 장편소설 『개척자』(1917~1918)는 화학자의 서사이며, 장편소설 『사랑』(1938)을 진화론에 입각하여 “사이언스 로맨(Science Roman)”¹⁶⁾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광수는 자전적 서사 『그의 자서전』(1936~1937)에서 “나는 다아윈의 진화론이 마땅히 성경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에른스트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을 비롯하여 생존경쟁,

15) 포스트휴먼 이미지의 사변과 서사적 형상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계몽주의 사상과 진화론에 기반하여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증강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지과학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영감을 받아 인간 조건의 가변성과 다중성을 탐구했다. Lisa Yaszek · Jason W. Ellis, “Science Fiction”, Bruce Clarke · Manuela Rossini edit., *The Cambri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the Posthu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71.

16) 와다 토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음, 2014, 325면.

적자생존, 우생열패로 요약되는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했다.¹⁷⁾

또한 이광수는 ‘로봇’이란 조어를 최초로 사용해 유명한, 카렐 차פק(Karel Čapek)의 희곡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1920, 이하 R.U.R.)을 소개하는 짧은 기사 『人造人(인조인)』(1923)을 쓰기도 했다. 당시 진화론에 경도되었던 이광수는 1월 21일호 『주간 아사히』의 기사를 수용해 “인류의 후계의 출현을 고하는 진화의 이야기”로 이해했다.¹⁸⁾ 그는 로봇이라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계몽주의 진화론적 서사에 입각해 이해한다. 『R.U.R.』을 노동문제를 다룬 사회주의적으로 독해하여 『인조노동자』로 번역했던 박영희¹⁹⁾와 독법의 차이가 크다.

최애순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서 카렐 차팩의 수용은 여성 운동가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의 방문 시기와 겹치는데, 산아 조절 운동, 산아제한 운동과 그에 대한 백래시(backlash)로까지 번진 이 현상²⁰⁾이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본에서 차팩의 수용과 프리츠 랑(Fritz Lang)의 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상영(1929)에 힘입어 발명과 로봇 소재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는 것이다.²¹⁾ 같은 시기에, 심훈은 세계 최초의 대작 SF 영화로 평가받는 『메트로폴리스』(1927)에 대한 감상평 『『푸리츠, 랑그』의 力作(역작) 『메트로폴리스』』를 『조선일보』(1929.4.30.)에 게재한 바 있다.²²⁾ 『R.U.R.』처럼 이 영화 역시 로봇과

17) 이재선, 『이광수의 진화론 사상: 사회진화론 및 에른스트 헤켈과의 관계』,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8) 와다 토모미, 앞의 책, 337면.

19) 이지용, 『한국 SF 연대기 4: 『인조노동자』와 헬레나의 시간』, 〈워크룸 프레스〉, 2024.8.6. (<https://workroompress.kr/product/216554/>)

20) 현재 한국의 저출생 문제 속에서 ‘아이가 미래’라는 재생산 미래주의(reproductive futurism)가 마스터플롯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금과 사뭇 대조적이다. 인구의 경제학과 여성주의, 기술과학의 교차 지점에서도 과학 서사는 작동한다. 노대원, 『아기 낳는 로봇—저출산 위기와 페미니즘 SF의 재생산 미래주의 비판』, 『어문연구』 118, 어문연구학회, 2023.

21) 최애순, 『한국 과학소설사』, 소명출판, 2023, 85-86면.

22) 심훈, 『『푸리츠, 랑그』의 力作(역작) 『메트로폴리스』』, 『조선일보』, 1929.4.30.

노동 문제를 주요 소재로, ‘인간의 기계화와 노예화’라는 현대적 주제를 서사화했다.

식민지 시기 출몰한 기술적 포스트휴먼의 형상 가운데 로봇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인조노동자’와 같은 사회주의적 수용이나 ‘인간의 후예’와 같은 (사회)진화론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나 다윈주의라는 두 관점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해방의 유토피아와 인간 진화라는 공통된 근대적 진보 사관/서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슷한 시기에 시나리오 작가 위클리프 힐(Wycliffe Hill)이 만든 ‘소설 제작 기계’ 로봇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1930)가 신문에 실렸다.²³⁾ 이것은 실제 로봇은 아니지만, ‘인조인간(人造人間)’이나 ‘자동뇌(自動腦)’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포스트휴먼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기계 창작이 가능한 생성 문학에 대한 상상력의 일단을 보여준다.²⁴⁾

이처럼 식민지 시기,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은 시대적 한계 때문에 기술의 직접적인 실현 가능성은 없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성찰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근대화 시기에 이미 전근대와 근대적 조건과 함께 탈근대적 포스트휴먼 상상력의 맹아가 공존했던 시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서구 근대 문학, 연극, 영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수용되었던 한국 문학과 문화의 특성도 포스트휴먼 문화(posthuman culture)라는 관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이광수와 김동인의 비교 구도로 돌아오자. 이광수와 달리,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는 풍자적 태도일지언정 과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예각화한다. 이 소설은 멜서스의 인구론에 입각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똥을 식량으로 바꾸는 연구를 시도하는 K박사의 이야기다. 똥과 떡(“○○餅”)이 결합된 이 그로테스크 미학은 일종의 ‘미친

(<https://newslibrary.naver.com> 검색)

23) 『小説製作機械』, 『동아일보』, 1930.12.19. (<https://newslibrary.naver.com> 검색)

24) 노대원, 『소설 쓰는 로봇—ChatGPT와 AI 생성 문학』, 129~130면.

과학자(mad scientist)²⁵⁾ 형상을 내세워 과학 연구와 발명을 전반적으로 희화화하며 풍자한다. 이광수에 대한 김동인의 강렬한 라이벌 의식을 염두에 둘 때, 과학 계몽주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조롱으로 읽을 수 있다.²⁶⁾ 이지용이 지적하듯, 이 소설에서 똥이 구시대적이고 청산해야 할 부정적인 적폐를 상징한다고 할 때, K박사의 연구는 과거의 문제를 서구 근대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 시기의 기대감과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세(Anthropocene) 담론과 생태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는, 이 소설의 인분 식량이라는 아이디어(sf novum)는 다시 읽기와 진지한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다.²⁷⁾ 그 발상의 엉뚱함이나 우스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구 행성에서의 거주 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기후 재난 시대에 순환 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인간을 생태계의 통합적 일부로 재위치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적 다시 읽기가 아니어도, 김동인의 소설은 당대의 과학 계몽주의와 기술 낙관론, 기술 애호(technophilia)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비판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광수와 김동인의 이 구도는 수십 년 뒤에, 그 차이는 분명 크지만 복거일과 듀나라는 대립 항의 구도와 비교해 볼만 하다.²⁸⁾ 이 두 작가들

25) 미친 과학자 인물은 SF와 포스트휴먼 문학에서 과학기술의 윤리와 한계를 심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대 SF 문학의 효시로도 언급되는 『프랑켄슈타인』(1818)이나 SF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메트로폴리스〉도 미친 과학자 서사의 계보에 속한다. “193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영국에서 배급된 1,000편의 공포 영화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화의 30%에 미친 과학자나 그들의 창조물이 악당으로 등장했고, 과학적 연구가 39%의 위협을 만들어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과학자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단 11%에 불과했다.”(https://en.wikipedia.org/wiki/Mad_scientist)

26) 문영희, 「공상에 젖은 계몽주의자에서 중독된 괴물 과학자까지 - 한국문학 작품에 그려진 과학자의 모습」, 〈웹진 대산문화〉 2007 가을.

(<https://daesan.or.kr/webzine/sub.html?uid=2360&ho=22>)

27) 이지용, 「한국 SF에서의 똥/쓰레기들이 가지는 의미」,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523~525·536~540면.

28) 두 작가의 비교에 대한 주요 평론으로는, 복도훈, 「한국의 SF, 장르의 발생과 정치적

역시 한국 포스트휴먼 SF에서 ‘계몽주의 진보 서사’와 ‘비판적 다원화 서사’의 두 축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광수와 비교 가능한 작가인 복거일은 과학 계몽주의자, 식민지 근대화의 변호자, 시장경제 옹호론자, 다원주의 우파의 면모를 보였다. 듀나는 김동인과 여러모로 다른 개성의 작가이나, 달리 냉소적 탈민족주의 성향이거나 영화평론가를 겸하며 대중문화 교양을 중요한 이념 또는 자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광수적 글쓰기와 더욱 반대편에 있다. 복거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서,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과학을 돕는다”²⁹⁾며, 과학소설의 사회적 기여와 과학 계몽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또한 과학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로서, 포스트휴먼 지식과 담론이 대중화되기 전에, 대표적인 기술적 특이점주의자라 할 수 있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며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피력했다.³⁰⁾ 반면에, 듀나는 SF에서 과학 이론은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르의 대중적 즐거움을 강조한다.³¹⁾ 장르 작가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지닌 작가로서 복거일만큼이나, 듀나의 SF 소설들은 ‘한국 SF 장르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³²⁾이다.

복거일이 대체 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1987)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라는 이광수적 주제에 천착했다면³³⁾, 듀나는 『제국의 칼날』(2021)에

무의식: 복거일과 듀나의 SF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08 여름(140), 창작과비평사, 2008; 김동식, 『탈식민성을 사고하고, 포스트휴먼을 상상하는 과학소설들—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듀나의 『태평양 횡단 특급』』, 〈list〉 20, Summer 2013, 한국문학번역원.

29) 복거일,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문학과지성사, 2007, 8면.

30) 『실질적 영생의 전망』, 위의 책.

31) 듀나, 『“중요한 것은 과학이론이 얼마나 재미있느냐이다”—나의 문학적 상상력』, 〈웹진 대산문화〉 2007 가을. (<https://daesan.or.kr/webzine/sub.html?uid=2362&ho=22>)

32) 이지용, 『듀나론—모르는 사람 많은 유명인의 이야기』, 『오늘의 SF』 #2, 아르테, 2020, 31면.

33) 이 소설에서 저항적 탈식민주의는 중앙과 권력에 대한 남성적 욕망으로 변질되는데, 이는 이광수처럼 복거일 역시, 이 소설의 창작 이후에 주로 표명하긴 했지만 우송

서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모두를 냉소적으로 비판한다.³⁴⁾ SF 장르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지닌 소설가, 복거일과 듀나는 모두 로봇과 같은 기술적 비인간 존재의 인간적 면모를 그림으로써 포스트휴먼 비전을 한국 문학에 중요한 흐름으로 만들어냈다. 다만,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서, 이광수와 김동인이 그랬듯, 두 작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과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복거일은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을 통한 사회적 진전을 기대하는 계몽적 자유주의자이며, 듀나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한계를 조롱한다. 두 태도는 한국 SF뿐만 아니라 한국의 트랜스/포스트휴먼 문화 전반의 중요한 길항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3. 창작기계와 컴퓨터 신: 90년대 사이버문학 시대의 SF

한국 포스트휴먼 SF는 아동청소년 SF, 만화 및 애니메이션 장르, 그리고 한낙원, 김윤주, 문운성, 복거일과 같은 소수의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오랜 겨울을 보내야 했다. 박선영은 ‘민중 SF’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1980년대 민중 문화의 시각에서 한국 SF를 읽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김준범의 만화 〈기계전사 109〉(1989)는 영화 〈터미네이터〉(1984)와 같은 미국 SF 문화물에 영향을 받았는데, 만화 속 ‘사이보그해방전선’처럼 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의 반향 역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80년대의 억압적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SF와 민주화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³⁵⁾ 물론,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학

열매의 다원주의적 시각을 지닌 것과는 관련될 것이다. 노대원,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복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2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7, 47~70면 참조.

34) 노대원, 「미래를 다시 꿈꾸기: 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3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45~46면.

35) 박선영, 『호혜의 시너지: 1980년대 한국 SF와 민주화운동』, 김재용 외, 박선영 편, 박

/문화에서 SF 장르를 비롯한 장르문학과 대중문화의 부상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비롯한 공산주의 몰락과 민중 문화 쇠퇴와 더욱 관련 깊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90년대 이래로 지도비평의 당위로 작용했던 사회주의 적/비판적 리얼리즘 문학이 점차 약화된 것과 동시에 문학적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9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PC 통신망의 일상화, 외국 과학소설의 번역 출간은 이후의 SF 문화의 전개에서 핵심 기반이 되었다. 영화 〈접속〉(1997)의 대중적 흥행과 김영하의 단편소설 『삼국지라는 이름의 천국』(1997)은 당시 PC 보급과 PC 통신이 만들어낸 사이버문화의 확산과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대표작이었다.³⁶⁾ 이처럼 90년대는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교호하는 ‘포스트리얼리티’(post-reality)와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인 ‘포스트릴레이션’(post-relation)³⁷⁾과 같은 포스트휴먼 조건의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PC를 일상과 글쓰기에 사용하는 작가들의 출현은 90년대 이래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포스트휴먼 상상을 소재로 한 SF를 낳게 했다. 90년대의 젊은 작가들은 컴퓨터와 ‘호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 창작을 시작했고, 〈하이텔〉과 〈천리안〉과 같은 PC 통신망은 새로운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 출현했다. 복거일은 직업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PC 통신망 〈하이텔〉의 ‘하이텔 문학관’에서 장편 SF 『파란 달 아래』를 1992년 5월에서 9월까지 연재하고,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했다. 90년대에 김영하, 장강명, 송경아, 두나, 김창규와 같은 당시 젊은 작가들도 PC 통신망을 통해 문학적 글쓰기

종우 역, 『민중의 시대』, 빨간소금, 2024; Sunyoung Park,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Mark Bould, Andrew M. Butler, and Sherryl Vint, eds., *The New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Taylor & Francis, 2024, p.231.

36) 조형래, 『인터페이스의 거울—1990년대 한국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컴퓨터, PC, 네트워크 표상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37) 도미니크 바뱅,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Post-human 1세대를 위한 안내서』, 궁리, 2007.

를 시작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르문학 글쓰기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거나 장르문학에 친화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평론가 이용옥은 90년대의 PC 통신을 중심으로 한 가상공간의 새로운 문학을 옹호하며 ‘사이버문학론’을 개진한 바 있다.³⁸⁾ 90년대의 PC 통신은 다원성, 양방향성, 익명성, 실시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SF, 무협, 추리소설 같이 엄숙함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장르문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³⁹⁾

특히 〈하이텔〉 과학소설동호회를 비롯한 장르문학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장르 팬덤(fandom) 속에서 관심사의 공유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팬덤이란 문화 현상이나 대상에 관한 공통된 열정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하위문화 집단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본래 SF 애호가들의 공동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SF 문학과 미디어에서 팬 공동체가 차지하는 역할과 문화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이며 참여적인 문화 생산과 해석의 주체로 인식된다.⁴⁰⁾ 90년대 장르문학 PC 통신의 장르문학 팬덤은 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장르문학과 주류문학의 전개에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동했다. 한편, 장강명의 지적처럼, 90년대의 SF는 복거일 같은 몇몇 작가를 제외하고는 전업 작가, 전문 비평가나 편집인이 부재하여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작자들은 대개 공대생이나 연구원, 혹은 저널리스트들로, SF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과학적·사회적 통찰력을 갖추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아마추어 수준의 구성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SF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하드 SF(엄밀한 과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SF)보다는 그 하부 장르인 테크노 스텔

38) 이용옥, 『인공자연의 탄생과 공존의 인문학—90년대 사이버문학론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7-4,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450면.

39)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72~73면.

40) 세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아르테, 2019, 6장 실천공동체도 참조할 것.

러, 가상전쟁 시나리오 등의 소위 인기 장르에서 해외의 베스트셀러들을 답습한 것들이 상당수였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SF 창작의 양적 팽창과 팬덤의 응집은 이후의 SF 문화와 포스트휴먼 문학에 큰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김다혜는 미디어고고학의 시각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디지털 공간에서 등장한 과학소설 텍스트를 ‘테크노 픽션’(techno-fic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 용어는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통해 생산된 텍스트라는 경험적 사실을 넘어서, 당시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과정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문학의 물질 기반으로서 기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 기술을 통해 주로 창작, 유통, 소비된 과학소설을 강조했다.⁴²⁾

초고속 통신망이나 반도체 산업으로 대표되는 전자 및 IT 산업의 성공으로 인한 1990년대와 2000년대 경제 발전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극단적인 기술 옹호론의 물질 토대였다. 여기서 기술 발전주의(technological developmentalism)는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사회기술적 상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달성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집단적이고 제도화된, 그리고 공적으로 수행되는 비전’으로 정의된다. 조선 후기 실학에서 출발하는 기술 민족주의 또는 개발 민족주의의 역사는 식민지 시기를 거쳐 박정희 시대에 정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지속된다.⁴³⁾ 그 점에서 90년대는 21세기 한국의 포스트휴먼 조건

41) 장강명, 「걸음마 배우는 우리나라 SF」, 『과학동아』, 1999.8, 101면.

42) Dahye Kim, “Who Is Afraid of Techno-Fiction? The Emergence of Online Science Fiction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27(2), 1 October 2022, pp.305~327.

43) Eun-Sung Kim,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the Globalization of Converging Technology Policy: Technological Developmentalism in South Korea”, *Science as Culture*, 27, 2018, pp.175~197; 노대원,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131~132면도 참조.

과 포스트휴먼 SF의 폭발에 앞서는 전사(前史)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는 시기로 주목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 작가의 PC 통신 창작 SF 단편을 엮은 소설집 『창작기계』(1993)의 표제작 김호진의 『창작기계』나 이한음의 SF 단편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1999)의 표제작이 보여준 것처럼, PC 보급과 사용의 일상화에 따른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포스트휴먼 상상력은 오늘날 21세기 AI 기술에 의한 인간중심주의의 붕괴와 기술적 특이점 서사를 예비하고 있다.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는 SF 소설 원작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유명한 AI 컴퓨터 ‘할’(HAL 9000)의 이름을 한 컴퓨터가 등장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송이’라고 불리는 하이퍼객체(Hyperobject) 또는 유비쿼터스적 생명체에 서사를 양도함으로써 오늘날의 생태적 포스트휴먼리즘 서사들을 선취했다.

PC 통신 시대 이후 2000년대는 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환상문학웹진 거울〉을 비롯한 새로운 팬덤 문화가 지속되었다.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을 통해 김보영, 배명훈, 정소연, 박성환, 김창규 같은 작가들이 등장했는데, 이지용은 이들을 “SF 장르를 창작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전문 작가군의 실질적인 1세대”⁴⁴⁾로 중요하게 평가한다. PC 통신과 인터넷 기술은, 2010년 중후반 이후 등장할 인공지능 기술의 충격과 더불어, 글쓰기 미디어이자 사유와 상상의 대상으로서 포스트휴먼 SF를 살피웠다.

캐서린 헤일스의 주장처럼⁴⁵⁾, 포스트휴먼 주체가 사이보그(Cyborg)처럼 기계와 유기적 신체의 결합이 아니라 기술적 매개체를 통해 신체를

44) 이지용, 『한국 SF 소설의 역사가 보여 준 특징과 현재: 근대문학의 시작에서부터 현대문학의 새로운 목소리까지』, 『문명과 경계』 6,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2023, 240면.

45) “포스트휴먼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비생물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플래닛, 2013, 26면.

확장하고, 정보의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라면, 이미 이 시기의 문학적 상상력은 포스트휴먼 주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는 우리가 어떤 포스트휴먼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면, 20세기 포스트휴먼 SF를 오늘날 읽는 작업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되었는지 묻는 미래지향적 회고일 터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20세기 한국 SF 장르 소설을 통해 포스트휴먼 상상력의 변천과 그 의미를 탐색했다. 특히, 식민지 시기와 1990년대라는 두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출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시기의 포스트휴먼 상상력은 로봇과 인조인과 같은 기술적 비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진화론적 낙관과 유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하거나, 반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시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광수와 김동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휴먼 서사는 서구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과 이에 대한 반응이 문학적으로 재현된 초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 현대 포스트휴먼 문화사의 맨 앞자리에 위치한 이광수와 김동인의 구도는 한국 SF 역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복거일과 두나의 구도와 더불어 살펴볼 만하다. 이 작가들은 각기 다른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두 갈래를 형성하며 장르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했다. 이들의 작품은 과학 기술에 대한 계몽적 신념과 비판적 성찰을 담아내며, 포스트휴먼 조건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탐색했다.

이어 SF 문학의 오랜 침체기를 거쳐, 199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와 PC 통신망의 확산,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포스트휴먼 SF가 다시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작가들은 컴퓨터와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소통 공간을 배경으로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장르문학 팬덤의 형성은 포스트휴먼 문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90년대의 PC 통신 문학과 2000년대의 인터넷 문학은 2010년대 중반 이후 SF 장르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90년대와 2000년대 문학은 개인의 감수성과 장르 소설에 대한 우호적 변화를 낳았다. SF 문학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포스트휴먼 조건 속에서 한국 문학사로 편입되었다.

한국에서 포스트휴먼 문학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처럼 기술적 비인간(nonhuman) 존재와 인간 향상 등의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기술 발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낙관과 열망은 이러한 담론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인류세적 위기 인식은 페미니즘과 생태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시야 확장을 낳게 했다. 포스트휴먼 SF와 그에 대한 연구 관점이 비판적이며 성찰적인 것에 비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술 자본주의에 극도로 경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담론으로서는 '계몽주의 진보 서사'가 압도적인 것에 비해, SF 문학과 연구는 '비판적 다원화 서사'가 우세하다. 그 간극은 비판적 성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SF 문학과 연구는 그저 새로운 (인)문화적 유행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면, 텍스트 비평에 갇히지 말고 컨텍스트에도 주목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실천 비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포스트휴먼 SF 연구는 이론적·해석적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자본주의 구조에 포섭되지 않는 대안적 상상력을 토대로 사회적 실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조건(시대)을 서사 '주제'나 사회적 '맥락'으로 삼는 문학뿐만 아니라 생성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생성

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작가’에 의한 소설이 등장했다. 지금의 포스트휴먼 문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요청할 뿐만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거듭 숙고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한계로,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한 시기의 포스트휴먼 주제, 작가, 텍스트에 대한 조명이 후속 연구에서 요청된다.

포스트휴먼 문학은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유를 요청한다. 이 논문은 20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발전 과정을 통해 이러한 질문과 사유의 여정을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포스트휴먼 문학이 기술과학과 연루된 인류의 미래와 윤리적 책임, 문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장르임을 재확인했다. 20세기 한국 포스트휴먼 SF는 AI와 기후 위기 등의 첨단 기술과 기술 재앙으로 요약되는 현대 포스트휴먼 문화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 SF 문학은 최초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세로 지칭되는 이 시대는 인간의 파괴적 힘이 늘어나는 동시에 AI에 의해 인간의 왕좌가 무색해지는 양면적인 기술의 시대이다. 인간 이후와 인간 너머를 상상하는 포스트휴먼 SF에 대한 심화된 고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듀나, 『“중요한 것은 과학이론이 얼마나 재미있느냐이다”-나의 문학적 상상력』, 〈웹진 대산문화〉 2007 가을.
(<https://daesan.or.kr/webzine/sub.html?uid=2362&ho=22>)

2. 단행본

-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 _____,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한국과학소설 100년사』, BOOKK, 2017.
- 도미니크 바뱅,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Post-human 1세대를 위한 안내서』, 궁리, 2007.
- 복거일,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문학과지성사, 2007.
-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김응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와다 토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최애순, 『한국 과학소설사』, 소명출판, 2023.
-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플래닛, 2013.
-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 Lisa Yaszek·Jason W. Ellis, “Science Fiction”, Bruce Clarke·Manuela Rossini edit., *The Cambri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the Posthu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Marek Oziewicz, “Speculative Fict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March 29, 2017. Date of access 2024.11.17.,
(<https://oxfordre.com/literature/view/10.1093/acrefore/9780190201098.001.0001/acrefore-9780190201098-e-78>)
- Sanna Karkulehto et al., “Reconfiguring Human, Nonhuman and Posthuman”, Sanna Karkulehto, Aino-Kaisa Koistinen, and Essi Varis, eds., *Reconfiguring Human, Nonhuman and Posthuman in Literature and Culture*, Taylor & Francis, 2020.

Sherryl Vint, "Posthumanism and Speculative Fiction," *Palgrave Handbook of Critical Posthumanism*,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2.

Sherryl Vint, *Science Fiction*, MIT Press, 2021.

Sunyoung Park,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Mark Bould, Andrew M. Butler, and Sherryl Vint, eds., *The New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Taylor & Francis, 2024.

3. 논문

김동식, 「탈식민성을 사고하고, 포스트휴먼을 상상하는 과학소설들—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듀나의 『태평양 횡단 특급』」, 『list』 20, Summer 2013, 한국문학번역원.

노대원,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SF—켄 리우 SF 소설의 역사적 상상력」, 『문학들』, 2023 겨울(74), 심미안.

_____,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복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2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7.

_____, 「미래를 다시 꿈꾸기: 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3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_____, 「소설 쓰는 로봇—ChatGPT와 AI 생성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7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_____, 「아기 낳는 로봇—저출산 위기와 페미니즘 SF의 재생산 미래주의 비판」 『어문연구』 118, 어문연구학회, 2023.

_____, 「인공지능의 복음서와 묵시록—듀나의 SF를 ChatGPT와 함께 읽다」, 〈문장웹진〉, 2024.4.1.

_____,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200, 국어국문학회, 2022.

_____,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23-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문영희, 「공상에 젖은 계몽주의자에서 중독된 괴물 과학자까지—한국문학 작품에 그려진 과학자의 모습」, 〈웹진 대산문화〉 2007 가을.

(<https://daesan.or.kr/webzine/sub.html?uid=2360&ho=22>)

박선영, 「호혜의 시너지: 1980년대 한국 SF와 민주화운동」, 김재용 외, 박선영 편, 박종우 역, 『민중의 시대』, 빨간소금, 2024.

- 복도훈, 『한국의 SF, 장르의 발생과 정치적 무의식: 복거일과 듀나의 SF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08 여름(140), 창작과비평사, 2008.
- 오세정,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인물론 연구』,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 _____,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장르론 연구—귀신 서사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1(27-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 이용옥, 『인공자원의 탄생과 공존의 인문학—90년대 사이버문학론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7-4,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 이지용, 『듀나론—모르는 사람 많은 유명인의 이야기』, 『오늘의 SF』 #2, 아르테, 2020.
- _____, 『한국 SF 소설의 역사가 보여 준 특징과 현재: 근대문학의 시작에서부터 현대문학의 새로운 목소리까지』, 『문명과 경계』 6,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2023.
- _____, 『한국 SF 연대기 4: 『인조노동자』와 헬레나의 시간』, 〈워크룸 프레스〉, 2024.8.6. (<https://workroompress.kr/product/216554/>)
- _____, 『한국 SF에서의 똥/쓰레기들이 가지는 의미』,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 장강명, 『걸음마 배우는 우리나라 SF』, 『과학동아』, 1999.8.
- 조형래, 『인터페이스의 거울—1990년대 한국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컴퓨터, PC, 네트워크 표상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최애순, 『1920년대 카렐 차페크의 수용과 국내 과학소설에 끼친 영향—김동인 <K박사의 연구>와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9, 우리문화회, 2021, 571~607면.
- Carolyn Lau, “Posthuman Literature and Criticism”, Rosi Braidotti ·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Bloomsbury, 2018.
- Dahye Kim, “Who Is Afraid of Techno-Fiction? The Emergence of Online Science Fiction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27-2, 1 October 2022.
- Eun-Sung Kim,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the Globalization of Converging Technology Policy: Technological Developmentalism in South Korea”, *Science as Culture*, 27, 2018.
- Stefan Herbrechter & Ivan Callus, “What is a posthumanist reading?”,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3:1, 2008.

4. 기타

심훈, 「『푸리츠, 랑그』의 力作(역작) 『메트로폴리스』」, 『조선일보』, 1929.4.30.
(<https://newslibrary.naver.com> 검색)

「小説製作機械」, 『동아일보』, 1930.12.19. (<https://newslibrary.naver.com>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Mad_scientist

Abstract

Narratives After the Human, Narratives Beyond the Human

–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20th-Century Korean Posthuman Science Fiction –

Noh, Dae-won(J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posthuman imagination and its significance within 20th-century Korean SF(Science/Speculative Fiction) genre literature. Posthuman studies encompass reflections on the posthuman, the beyond-human, and the future and end of humanity, while the development of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climate crisis, and the Anthropocene ecological crisis provide the backdrop for transforming the imaginative scope of Korean literature. The paper broadly defines posthuman literature as addressing “the posthuman” in terms of theme and subject, being created “by the posthuman”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allowing for “posthumanist readings” from the reader’s perspective. It analyzes how these facets of posthuman imagination were shaped and developed in 20th-century Korean SF.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1990s, the paper investigates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Korean posthuman SF, examining major authors and texts from each era. Through the works of Yi Kwang-su and Kim Dong-i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identifies two directions: the enlightened optimism and the critical perspectives toward technological non-human subjects such as robots and artificial humans. These works laid the groundwork for posthuman narratives crafted by later authors like Bok Geo-il and Djuna. The 1990s marked a renewed flourishing of posthuman SF, coinciding with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 PC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age, thereby expanding the horizons of Korean SF with various attitudes towards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reaffirms that posthuman literature is a genre that poses new questions about human identity and essence, and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exploring the future of humanity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hip with technoscience. The 20th-century Korean posthuman SF formed the foundation of modern posthuman culture characterized by advanced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catastrophe, such as AI and climate crisis, and will continue to evolve and expand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future.

keywords: SF, Speculative Fiction, Yi Kwang-su, Kim Dong-in, Bok Geo-il, Djuna

접수일자: 2024.11.17.

심사기간: 2024.11.22.-2024.12.22.

게재결정: 2024.12.26.